

살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VOL. 119 2024 봄호



수아야 퇴원 축하해!

꽃처럼 살자
꽃은 그늘에 피어서도 웃는다
—— 허창열



살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VOL. 119 2024 봄호



표지이야기

수아야 퇴원 축하해!

발행일 2024. 5.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중선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이상철

편집 주무관 서옥란

편집위원 농암초등학교 주무관 김수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주무관 김선옥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천마인쇄복사 053)817-4126

www.gbe.kr/news

www.instagram.com/gbe.gyo6

blog.naver.com/2mcool

www.facebook.com/gogogbe

www.youtube.com검색창 ▶ 맛쿨멋쿨TV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지는 www.gbe.kr/news(경북교육소식 ▶ 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지면 상단에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보이스아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무료 소식지(비매품)입니다.

경북교육 꾸미기

- 04 경북 교육발전특구에서 키운 인재가 지방을 살린다
- 06 경북-R컴퓨터,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다
- 08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북희망학교, 구미원당초
- 10 폐교의 화려한 변신, 영천 시안미술관

교육현장 이야기

- 12 유, 초, 중, 고 교육현장 이야기

경북아이 뽐내기

- 16 '고교생 토르' 박시훈,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투포환 은메달 획득!
17살 전유진과 9살 이수연, 트로트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다
- 17 죽변고, 대한사격연맹 제4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장지현 선수 개인전 금메달 획득!
우석여고,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2년 연속 단체전 우승!

공감 더하기

- 18 [교육칼럼] 중용(中庸)에서 배우다
- 20 수술 4번 끝에 돌아온 학생을 울렸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진짜 교실(농소초)
- 22 쌀?맛나는 학교(도춘초)

생생정보 나누기

- 24 사는 습관(Buying Pattern)이 사는 습관(Life Style)을 좌우한다
- 26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 28 2028학년도 대입개편 톺아보기
- 31 바로 쓰는 알쏭달쏭 우리말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seokok7@gbe.kr 054)805-3063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



경북 교육발전특구에서 키운 인재가 지방을 살린다

내실 있는 경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인재가 교육,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지방 소멸의 시계는 멈추고 지방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처럼 조선시대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기반이 잘 닦여진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으로까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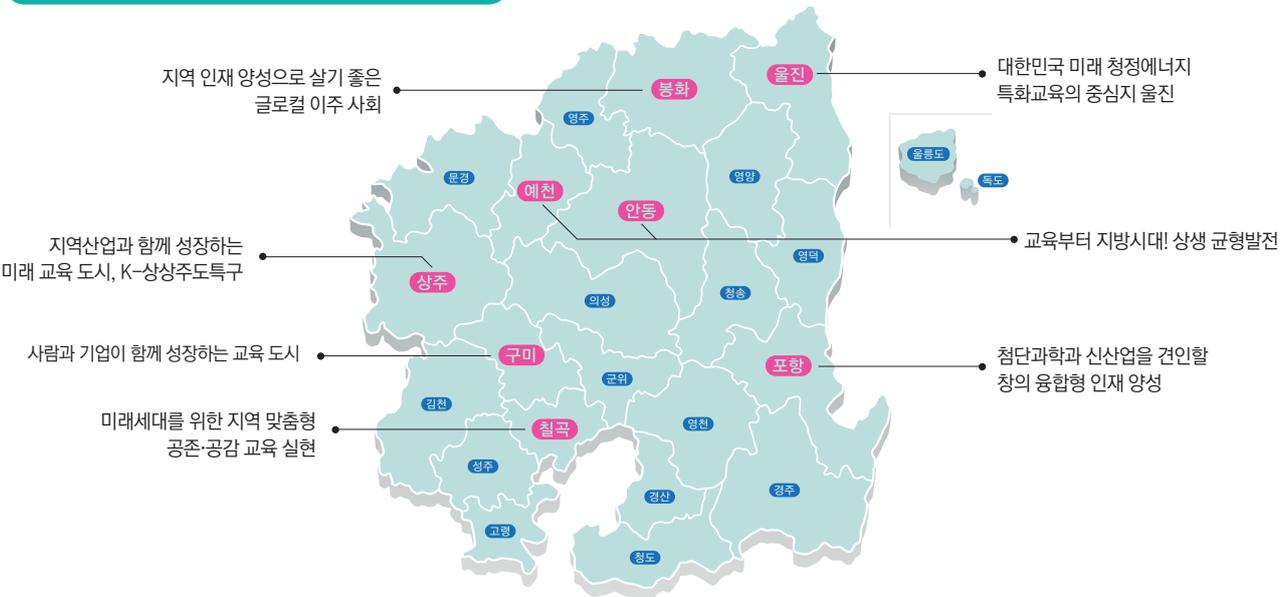
수도권으로 올라간 청년들, 과연 행복할까?

교육, 일자리를 위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의 청년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높은 생계비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근로 의욕을 잃고, 불확실한 미래로 결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0명대의 출산율을 벗어날 희망마저 사라지는 대목이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0명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의 소멸 시계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경북 교육발전특구에서 키운 인재가 지방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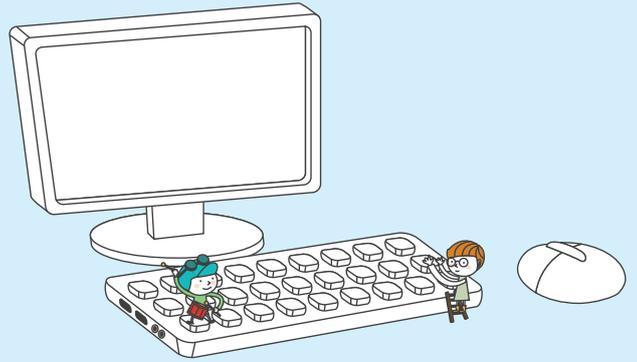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경북은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하고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지원을 받는다. 선도 지역에는 포항, 구미, 상주, 울진, 안동·예천이 지정되었고 관리지역에는 칠곡, 봉화가 지정되어 교육부로부터 30~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교육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지정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경북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추진 모델





경북-R컴퓨터,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다



경북교육청과 여러 협력 기관의 손길이 모여 학교 물품 창고에서 잠자던 버려진 자원이 “따뜻한 경북-R컴퓨터”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거듭났다. 세계교육 표준을 위해 달려가는 경북교육청의 따뜻한 손길이 R컴퓨터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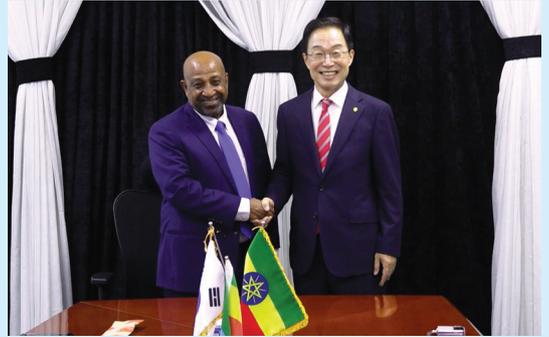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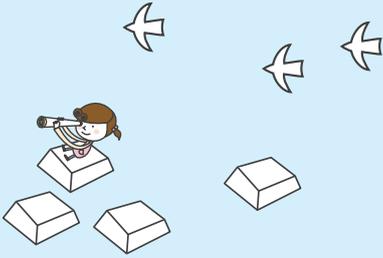
전국 최초로 디지털 기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경북교육청은 급속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정보화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매년 이렇게 교체된 장비만 대략 수만 대. 대부분 불용 처리를 거쳐 매각하는 게 관례다.

교체되는 정보화 장비가 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따뜻한 경북-R컴퓨터’라는 디지털 기기 재자원화(Resourced, Recycled, Reusabled) 사업을 시작했다.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개발도상국에 R컴퓨터를 보내 해당국의 정보화 교육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의 보급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폐기되는 컴퓨터를 재자원화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전국 최초로 “경북형 디지털 기반 선순환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업무 경감, 지역 상생, 탄소중립,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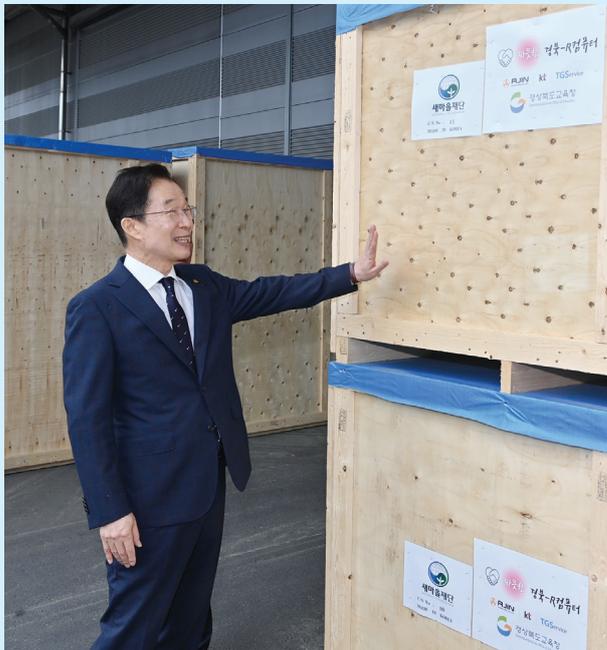
학교에서는 불용 처리된 정보화기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일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모두 7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사업 초기부터 경북광역자활센터와 재자원화 업무협약을 맺고 수거 단계부터 참여하여 업무 경감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자원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4개국에 840여 대 지원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경북-R컴퓨터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글로벌 지원망을 구축하였다. 작년 한 해 국내 36대, 과테말라 184대 (노트북 108대, 태블릿 76대)를 비롯해 총 220대를 지원하였다.

올해는 중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데스크톱 240대, 노트북 190대, 태블릿 111대, 총 541대를 시작으로, 몽골과 에티오피아에 30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북희망학교, 구미원당초

빠르게 변하는 시대, 적정규모의 학교에 대한 고민

지역 경제산업의 핵심 시설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사람이 몰려든다.

구미시 산동면 내에도 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1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지 내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원당초가 2020년 3년 1일 267명의 학생을 맞이하며 개교하였다.

학교가 새로 들어섰지만,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하는 대로 학생 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을까?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교생이 1,000명 이상 과대 학교 인근에 있는 유휴 교실을 보유한 학교를 ‘경북희망학교’로 운영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하였다. 구미원당초는 ‘경북희망학교’ 공모에 참여하여, 2022년부터 5년간 경북희망학교로 선정되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다.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선택 기반 교육, 지역사회 교류 및 공동체 가치 함양 교육, 교육과정 중심 학교 자율 운영체제 구축 등 4가지 전략으로 미래형 학교 모델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여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다.

구미원당초는 2020년 267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378명, 2022년 472명, 2023년 565명, 올해는 632명까지 매년 학생 수가 늘면서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다.



맛집 같은 ‘경북희망학교’에 희망이 보인다

맛집을 찾는 사람은 줄이 좀 길어도, 거리가 좀 멀어도 어떻게든 찾아간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킨다면 그 학교로 학생들이 찾아갈 것이다.

해마다 줄어드는 학령 아동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구미원당초의 사례를 보면서 ‘경북희망학교’가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드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 희망적이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영천 시안미술관



마을에서 '학교'가 가지는 의미

마을 안에서 학교란 단순히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학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인생의 따뜻한 추억을 쌓았고, 이웃과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낸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신생아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학교’

농촌 마을에서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농촌 마을의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매년 늘고 있으며, 아이와 선생님이 떠난 자리는 수풀이 우거진 폐교만 덩그러니 남는다. 경북교육청에서 2024년 관리하는 폐교만 해도 241개(자체 활용 74교, 대부 110교, 미활용 57교)에 이른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영천 시안미술관

더 이상 마을의 흉물로 남지 않고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폐교가 있다.

바로 영천의 시안미술관이다. 영천시 화산면에 1999년 폐교한 화동초등학교를 개보수해 탄생한 복합 문화 예술공간이자 전문 미술관으로 2004년 4월 ‘시안아트센터’로 설립되어 2004년 12월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미술관이다.

2005년에는 한국 여행작가협회로부터 폐교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뽑혔다고 한다. 또한 시안미술관이 자리한 가래실마을은 ‘2011 문화체육관광부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미술관과 마을의 경계를 없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시안미술관은 매년 4~5회의 기획 전시를 열고 있다. 학생과 마을주민, 일반인에게 다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진 자리를 곳곳이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폐교 활용의 모범적인 대안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

시안미술관 주소: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래실로 364
문의: 054-338-9391
누리집: <https://cianmuseum.org/>



. SCHOOL NEWS.

잔디밭을 슷돌이처럼 달리는 감꽃유치원 친구들



상주감꽃유치원(원장 우윤숙) 원아들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주B축구센터 풋살장에서 축구를 배운다.

전문 코치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을 발에서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드리블을 익히며 축구의 기본기를 다진다. 4월 축구교실 마지막 날에는 팀별로 축구 시합을 하며 축구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함께 키웠다.

유아들은 축구교실에서 기본적인 체력은 물론,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질서와 협력, 책임감을 배우고 스포츠 정신과 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봄꽃 가득한 침성대로 봄나들이 가요

모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임미화)은 4월 11일 ‘따뜻한 봄’을 주제로 침성대 일대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침성대 주변에 핀 다양한 봄꽃을 찾아보고 돋보기와 루페(확대경)를 활용해 자세히 관찰하였다. 또한 사전에 알아본 침성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며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본 꽃보다 예쁜 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침성대의 돌을 쌓을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침성대 안에 들어가서 별을 관찰하고 싶어요.”라며 저마다 소감을 말했다.

• SCHOOL NEWS •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왕 카네이션 만들기’



구미봉곡초등학교(교장 김선국)는 4월 27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희망 학생 100명과 함께 ‘왕 카네이션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학부모회가 주관하여 학부모 14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며 정성껏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완성된 카네이션은 가정에서 보관하다가 어버이날 당일 아침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부모님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선국 교장은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

독서를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으로 독도 수호 정신 함양

법전중앙초등학교(교장 김지철)는 독도 교육 주간(4. 22.~4. 26.)을 맞이하여 독도 관련 책 읽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년별로 토론, 수필 쓰기 대회, 독도 퍼즐 만들기, 독도야 사랑해 벽시계, 독도 개운죽 심기, 독도 멋쟁이 등대 만들기, 독도 스트링아트, 독도 사랑 노래 부르기, 독도 관련 퀴즈 등 책 읽기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이번 독도 교육 주간을 통해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임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독도를 지키는 우리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SCHOOL NEWS •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으로 교권 존중 문화 확산

기성중학교(교장 김미애) 전교생과 선생님들은 4월 22일 학교 텃밭에 방울토마토, 땅콩, 옥수수, 감자, 오이 등 농작물을 심는 활동으로 올해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다. 작년부터 교권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제동행 운동장 걷기, 해양 환경정화 봉사활동, 문화 체험활동, 텃밭에 심은 채소 수확하여 반찬 만들기, 사제동행 체육대회와 사진대회 등 다양한 사제동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성중학교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사제 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체력도 단련하고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리 지역 바로 알기 농촌 체험 진로활동

용암중학교(교장 김유정) 1학년 학생들은 4월 29일에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하하수미' 농촌교육농장에서 우리 지역 바로 알기 농촌 체험 진로활동을 하였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연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지역 특산물인 참외를 활용하여 피클과 스무디를 만들며 그동안 단순히 먹던 참외를 취향에 맞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참맛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로봇으로 성주 지도를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지역 명소와 홍보용 관광 지도를 만든 후 발표하면서 첨단 기기 사용 경험을 얻고 미래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웠다. 또한 오징어 게임과 달고나 만들기, 구슬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을 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 SCHOOL NEWS .

경북조리과학고, 취업 면접 통과를 위한 자체 경연대회 열어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교장 고시환)는 4월 25일 학생 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1회 교내 모의 면접 경연대회'를 열었다. 실제 면접장처럼 꾸민 다목적실에서 3학년 60여 명의 학생들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질문에 대답하며 3대 3 집단 면접을 긴장 속에서 치렀다.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은 "실제 면접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긴장 속에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 실습과 취업을 앞두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거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서고, 활발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나의 무대는 세계'라고 배운다

이서고등학교(교장 김태득) 학생들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학교를 방문한 미국 뉴욕 데모크라시 프렘 공립학교 고교생들과 함께 특별한 수업을 하였다. 체육 시간에는 제기차기 등으로 한국 전통문화 놀이를 체험하였고, 가사 시간에는 K-푸드인 경단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외 체험학습으로 불국사, 대릉원, 천마총, 황리단길 각 장소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서로 배웠다. 앞으로 이서고 학생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고등학교와도 국제교류 활동의 폭을 넓히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세계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
금오고

**‘고교생 토르’ 박시훈,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투포환 은메달 획득!**



‘고교생 토르’라고 불리는 구미 금오고등학교(교장 최달생) 2학년 박시훈 학생이 4월 25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1회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포환던

지기 결선에서 19m 23을 던지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인도의 1위 아누락 싱 칼라 선수와 똑같이 19m 23을 던졌지만, 최고 기록이 같을 때 두 번째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박시훈이 2위로 밀렸다. 총 6번의 시도에서 1위의 두 번째 기록은 18m 79, 박시훈의 기록은 18m 71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지난해 예천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한 박시훈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경기 종료 후 박시훈은 “이번 대회에서 기록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실감했으며, 경기를 진행하며 최고 기록과 함께 평균 기록도 함께 높여야 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항상 배우려는 낮은 자세로 세계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박시훈의 미래를 응원한다.

포항동성고
경주 흥무초

**17살 전유진과 9살 이수연,
트로트로 대한민국 국민의
심금을 울린다**



지난 2월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MBN ‘현역가왕’ 최종회가 지상파-비지상파를 통틀어 시청률 1위를 기록

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 무대에서 포항동성고 3학년 전유진 학생이 제1대 ‘현역가왕’의 자리를 차지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국민가수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난 3월에는 경주 흥무초의 9살 이수연 학생이 TV조선 ‘미스트롯3’ 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 ‘올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 경북교육청은 트로트로 국민적 사랑을 받는 전유진 학생을 ‘경북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수연 학생에게는 경북교육을 빛낸 학생에게 전하는 경상북도 교육장학회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경북의 두 소녀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가수가 되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울진
죽변고

대한사격연맹 제4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장지현 선수 개인전 금메달 획득!



죽변고등학교(교장 배호식)는 지난 4월 15일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4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10m 공기소총 여고부 개인전에서 장지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총 31개교, 12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경쟁이 치열했다.

또한 4월 26일 치러진 46회 총무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동메달, 5월 7일 치러진 제25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까지 거머쥐며 현재까지 전 대회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 대회들을 포함하여 올해 대회 성적 포인트를 합산하여 2025년 사격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하니, 장지현 선수가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가 되길 응원한다.



상주
우석여고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2년 연속 단체전 우승!



우석여자고등학교(교장 장승철)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일간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60회 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여고부 단체전 금메달(황정미, 박은정, 김미소, 김주이, 이서진, 이세현), 개인 복식 은메달(황정미, 이서진)을 획득했다. 특히 단체전에서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황정미 학생은 최우수선수상, 배점갑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는 영광까지 누렸다.

교육칼럼

중용(中庸)에서 배우다

박찬선¹⁾ 낙동강문학관 관장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선택과 확정이 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다. 생각대로 쉽게 결정되고 이뤄진다면 사는 재미도 없을지 모른다.

낙동강문학관 제1전시실 벽면 안 자료에는 『중용』 책 한 권이 놓여있다. 필자가 소장한 책이다. 한자 활자본으로 낡고 찌들어 볼품이 없다. 표지가 검은 때로 절었는가 하면 먹물로 물들었으며, 오래 사용하여 한지가 너털너털 피어 부른 상태이다. 책장을 넘길 때 손이 닿는 아랫부분은 반달처럼 움푹 들어갈 정도로 닳았다. 책의 나이와 사용 빈도를 알 수 있는 상태지만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불태워 버리려고 소각장에 들고 갔다가 이걸 아니지 싶어서 그냥 두었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 반복하는 동안 책을 읽

었을 선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장단 맞춰 강독하는 글 소리가 쟁쟁히 울려서 서가의 한쪽에 머물렀다.

그러던 차에 필자가 제안해서 세워진 낙동강문학관 개관 준비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전시 공간이 정작 게시 인물과 작품 선정 등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게시 인물의 자료 확보가 무척 어려웠다. 평소 각종 행사의 발표문이며, 안내장 한 장, 기념사진 등 자질구레한 것도 버리지 못하는 습벽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쓰였다.

한편으로 인물 소개를 위해 문집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상주 출신으로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과 이조판서에 올라 전형(銓衡)을 담당했던 우복 정경세(1563, 명종18~1633, 인조11)의 시문을 모은 우복집(愚伏集)을 읽다가 중용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복은 벼슬길에서 물러나 우산에 머물면서 학문연구에 몰두하였고 존애원을 설치하여 사람의 병을 무료로 진료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중용을 강독하기도(선조 35, 1602 임인년 12월) 하였다. 특히 임금이 유교 경전을 앞에 놓고 학자 출신의 문신들과 경의(經義)를 강론한 경연일기(經筵日記)에는 인조 임금과 7년 동안 시행했는데 시강한 책 속에는 중용이 빠짐이 없었다. 그중에서 인심유위(人心有危)로 “인심은 쉽사리 욕심으로 흐르는데 도심이 주재하지 않는다면 먹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입는 것은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입는다. 이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하는 내용은 현실을 둘러보아도 새롭게 읽힌다. 그리고 인조 1년 1623 계해년에 올린 소차(疏筵)에서도 중용의 성(誠)을 언급하며 한결같이 진실하게 거짓이 섞이지 않는다면 행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용 사랑은 가학으로 6세손인 입재 정종로(1738, 영조14~1816, 순조16)에 까지 이어졌다.



또 하나의 예를 덧붙이면 수암 류진(1582, 선조15~ 1635, 인조13)은 18세에 부친인 서애로부터 중용을 받아 익히며 훈육을 받았다. 임란이 끝난 후에 서애는 수암의 학업 과정을 검토하며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애는 수암에게 정여창의 중용 장구 해석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일두설의 문제점을 알려주어 스스로 그 이치를 깨닫게 했다. (『수암 류진의 학문과 사상』 수암 선생 상주 입촌 400주년 기념논총) 이처럼 중용은 치국과 개인의 수양에도 크게 작용했다.



책이 인생과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다.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 『오디세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괴테의 『파우스트』 등 불후의 세계 명작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은 사고의 전환과 함께 인생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기도 했다. 위에서 예로 든 중용 또한 조선의 성리학의 나라로 만든 중심에 있다.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백승종)인 그 중용을 게시 인물과도 연계가 되어 진열장에 모셨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불태워 버리려던 책이 완전히 다르고 새롭게 보였다. 3,500여자에 불과한 인생의 교훈서인 중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대어 있지 않는 상태인 중(中)과 시간상으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용(庸)을 설파한 경전이 의젓하게 자리 잡았다. 경전으로서 중후함이 압도해 왔다. 옥에 티가 묻었지만 옥은 옥이었다. 닳은 부분은 오랜 학문적 수련과 인내, 실천적 의지의 징표라고 생각할 때 외경의 마음이 일었다. 마치 한 때의 경솔함을 꾸짖기라도 하듯 근엄하게 보였다. 책이나 사람이나 있을 자리, 놓일 자리가 있음을 깨우쳤다. 인간이 취할 행도의 최선의 길을 담고 실천을 설한 중용의 내용과 함께 외형으로서 책이 보여주는 상징적 가르침을 톡톡히 배운 셈이다. 머물 곳과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넉넉히 알려주는 중용을 통해 극단으로 치닫는 어지러운 세상, 어느 곳 어떤 자리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용이 눈앞에 있다. 출근하여 전시된 중용 앞에 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모은다. 놓일 자리 설 자리를 일깨워 줘서 고맙다고.

1) 상주고등학교 교장 및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낙동강문학관장으로 있음

수술 4번 끝에 돌아온 학생을 울렸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진짜 교실



김천의 농소초등학교 6학년 3반 친구들이 수아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영상이 온라인 속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쌀? 맛나는 학교, 도춘초

도춘초등학교 교사 _ 김동현



66 밥을 먹지 않는 아이, 육류만 고집하는 아이 등 초등학교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맛있는 밥이 똑딱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똑같은 쌀밥을 보더라도 조금 더 맛있고 귀하게 생각하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춘초등학교의 건강 식생활 교육을 시작하였다. 99

전통 장류 담그기



지난 4월 17일, 도춘초등학교는 우리 밥상에서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든든한 역할을 하는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된장과 간장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다양한 식품 가공 기술과 편리한 조미료들의 등장으로 된장과 간장 또한 전통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다.

된장을 직접 담그는 이유가 꼭 전통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합성 조미료에는 없는 천연의 맛과 풍미를 위해서일 것이다. 또 누군가는 현대 사회의 공업적인 식량 생산 방식을 피해 자연을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함일 것이다.

다양한 가치를 경험으로 익혀야 하는 초등학교에서 장류 담그기는 단순한 일회성 체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경험일 것이다. 아이들은 직접 소금물을 만들고, 가루 메주를 망에 담아 장독대로 나르고, 소금물의 염도를 확인해 장독대에 숯과 고추를 넣는 마무리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다. 현재도 일주일에 한 번 장독대를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60일 뒤에는 직접 메주를 으깨고 된장과 간장을 분리할 것이다. 그제야,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된장과 간장이 나오는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 배운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는 장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완성하기까지 묵묵하고 성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만의 텃밭 가꾸기



도촌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꼬마 농부가 되어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평소에 먹었던 감자볶음, 옥수수, 토마토 등의 작물이 간단한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절로 알 수 있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대추 한 알에 땀방울, 태풍, 천둥이 몇 개씩은 들어있음을, 저절로 그 재료가 되지 않았음을 몸소 익히는 것이다. 모종만 심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씌워야만 심을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아이들 입에서는 “농사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 점심 급식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거예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나의 작물에 대하여 깊고 정확하게 아는 일은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정말 먹기 힘들어하는 브로콜리도 3개월간 열심히 키운다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깝지 않을까? 아이들은 오늘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연의 선물을 받는 중이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체험학습



채식 위주의 식단은 단순히 육식 위주의 식단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동물 윤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도촌초등학교 전교생은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 다녀왔다. 「지구 지킴이」라는 대주제와 「탄소 중립」과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체험학습을 하였다. 채식을 접하기 전 학생들은 시대적 패러다임인 「탄소 중립」을 꼭 알아야만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에 대하여 배우고, ‘행가래(행복(幸)을 더하는(加) 내일(來)을 만들자)’ 앱을 활용하여 직접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고, 탄소 중립의 필수 존재인 나무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아이들은 채식에 관한 바탕 지식을 충분히 쌓고 난 뒤 본격적으로 채식에 관하여 배웠다. 우선 학생들이 흔히 하는 오해인 ‘फल만 먹는 것이 채식’이라는 인식부터 바꿨다. 다양한 범위의 채식 식단이 있으며, 채식 관련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ASMR 콘텐츠와 채식을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채식을 해보기도 하였다. 이튿날, 자신만의 채식 이야기를 구성하여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하여 채식 메시지를 만들었다. 오래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가방(에코백)에 메시지를 전사하는 활동으로 1박 2일의 체험학습을 마무리하였다.



1)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



사는 습관 Buying Pattern이 사는 습관 Life Style를 좌우한다.

강수현 _ 경상북도소비자행복센터장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부화 가난이 대물림되듯 부모의 소비 습관도 그대로 대물림된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 고정적으로 많은 돈을 소득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수중에는 돈이 남아 있지 않는가? 왜 월급은 전자화폐처럼 그저 숫자로만 인식되고 마는가? 또 마이너스 통장은 왜 끊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 자극하는 것이 많다. 우리의 시간 속에는 주위 사람들, 욕망, 비교, 책임 등 특히 소비에 대한 유혹이 엄청나다. 소비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 예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도 소비된다. 결국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돈을 잘 쓰는 법,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 즉 탄탄하게 소비하는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경제교육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돈을 보는 눈은 어떠해야 할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은 돈을 맹목적으로 밝히게 만든다. 쉼 없이 돈을 벌다 보면 부자가 된다는 부추김, 그 생각은 우리네 인생을 기계처럼 감동 없이 살도록 부추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면 된다는 조언, 개념 없이 벌어서 소중한 우리의 삶을 존중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제는 즐겁고 가치 있게 벌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품격 있는 태도로 돈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경제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교육을 소망한다!

요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이야기 속의 행복한 부자는 '나로 한정된' 경향이 짙다. 부를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경제적 자유의 추구가 개인의 영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을 함께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가족 간 마저 느슨해지는 연대감 속에 우리의 부(富)가 가족으로 먼저 향하길 소망한다.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복원되길 희망한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재정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방향성을 정할 때 우리는 <삶의 행복>을 다시금 돈을 통해 누리게 될 것이다.



자녀 경제교육 10계명

1계명 실패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치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명확한 아이는 나중에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실패를 다룸에 있어 가장 큰 부작용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2계명 결핍을 가르쳐야 결실이 생긴다.

사막에 사는 사람이 비가 오는 것을 가장 많이 감사히 여기는 것처럼 결핍을 가르쳐야만 자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3계명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가르치라.

자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 부채 =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빚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통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게 되고 늘어나는 돈과 줄어드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

4계명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가르치라.

아이들의 소비 중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 중 하나인 '동조 소비' 또래와의 유대감을 느끼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의 욕구가 뚜렷해지는데 이러한 총동적인 동조 성향으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5계명 재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라.

재정적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으로 분수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지혜를 의미한다. 재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만큼 행동하는 것! 과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도록 균형감 있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6계명 경제적인 자조 기술을 익히도록 하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가 직접 해보는 경험'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을 보다 규모 있게 소비하며 가계 경제를 예산과 결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많은 빛을 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7계명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저축은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익혀주고 지출을 막는 "자기 절제력"을 배우게 된다. 자기 절제력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투자와 불법적인 투기 방식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8계명 용돈은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롭게 쓰는 돈이므로 간섭하지 마라.

용돈을 예산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여 용돈을 통해 지출의 계획을 세울 것.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용돈의 지출 용도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용돈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9계명 정기적 수입과 비정기적 수입을 구분하게 하라.

정기적인 수입 = 용돈, 비정기적인 수입 =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 등의 돈, 비정기적 수입은 되도록 저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저축을 거쳐 지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계명 세상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음을 항상 알려줘라.

돈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경제교육 10계명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WWhCOjHf7nc>



자녀경제교육 10계명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lfPkRaNv6Qw>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약사 박영민 _ 경상북도약사회 '약 바로 알고 바로 쓰기' 강사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 시기에 약물을 사용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사회적 압력, 스트레스, 호기심,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하다.

약물 오남용은 학업 성적 저하,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약물

알코올: 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이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다. 알코올 남용은 건강 문제, 학업 성적 저하, 위험한 행동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담배 및 니코틴 제품(예: 전자담배): 청소년들 사이에서 흡연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처방 약 남용: 통증 완화제, 진정제, 식욕감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의 치료 약(메틸페니데이트) 등 처방 약의 무분별한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종종 중독을 일으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기 약물 오남용 예방 방법

1 교육 및 인식 제고

청소년들이 약물의 위험성과 그 부작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세션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감정 지원 및 정서 교육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 건강한 여가 활동 증진

스포츠, 예술, 음악 등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 시간을 유용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허함이나 지루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감독 및 모니터링

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친구 관계, 학교생활, 인터넷 사용 등을 적절히 감독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위험한 활동이나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한다.

5 포괄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역사회 차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교, 지역사회 센터, 종교 기관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들은 청소년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순히 금지와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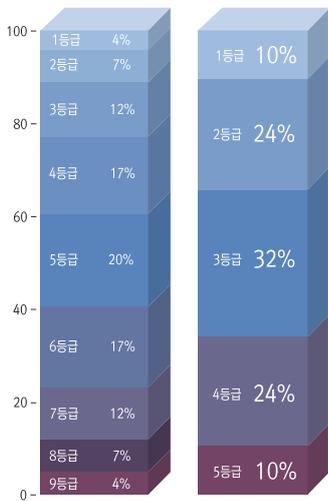
2028학년도 대입개편 톺아보기

현 중3학년 부터 적용

2028학년도 내신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9등급제 ▶ 개편 5등급제



현재 9등급제

1등급	백분위 : 100~96	상위 4%
2등급	백분위 : 95~89	상위 5~11%
3등급	백분위 : 88~77	상위 12~23%
4등급	백분위 : 76~60	상위 24~40%
5등급	백분위 : 59~40	상위 41~60%
6등급	백분위 : 39~23	상위 61~77%
7등급	백분위 : 22~11	상위 78~89%
8등급	백분위 : 10~4	상위 90~96%
9등급	백분위 : 3~0	상위 97~100%

개편 5등급제

1등급	백분위 : 100~90	상위 10%
2등급	백분위 : 90~66	상위 11~34%
3등급	백분위 : 66~34	상위 35~66%
4등급	백분위 : 34~10	상위 66~90%
5등급	백분위 : 10~0	상위 90~100%

내신은 **5등급제!** 모든과목이!
수능은 똑같이 **9등급제!**

대입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목 평가결과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됩니다.

※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기준, 151과목(붙임1) 중 9과목(6%)

구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지수
보통교과	○	A·B·C·D·E	○	○	○	○
사회·과학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	○	○	○

2028학년도 수능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

절대평가 적용영역

영역	현행(~2027수능)	개편안(2028수능~)
국어	<p>공동 + 2과목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 독서, 문학 •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p>공동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ㄴ</p>
수학	<p>공동 + 3과목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 수학 I, 수학 II •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p>공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통계)</p>
영어	<p>공동 (영어 I, 영어 II)</p>	<p>공동 (영어 I, 영어 II)</p>
한국사	<p>공동 (한국사)</p>	<p>공동 (한국사)</p>
탐구	<p>17과목 중 최대 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 과학 :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p>사회 : 공동 (통합사회)</p> <p>과학 : 공동 (통합과학)</p>
	<p>1과목 : 5과목 중 택1 2과목 : 공동+[1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 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 :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 기초, 인간발달 	<p>직업 : 공동 (성공적인 직업생활)</p>
	<p>9과목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p>9과목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제2외국어/한문	<p>9과목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p>9과목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체제로 변경됩니다.

- 기존 수능 체제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로 운영되어왔으나, 2028 수능에서는 선택 없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기존에는 수학, 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에 따라 인문계, 자연계의 구별이 존재해왔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원점수에도 표준점수와 등급이 달라지는 ‘선택 과목별 유불리의 문제’가 있었으나, 변경되는 수능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됩니다.
-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응시자 모두가 동일하게 응시하되,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합니다.

출제 범위에 포함된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 수학 영역의 출제 범위는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로서, ‘미적분 II와 기하’는 제외됩니다.
-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만 출제가 되므로, 기존에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했던 것에 비해 범위가 축소됩니다.
- 특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직업탐구 영역도 기존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 1과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EBS 연계는 현행 체제와 동일한 50% 간접 연계방식을 유지합니다.



경북교육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교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내신 등급 구간별 인원이 증가한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교 학점제 시대에 발맞추어 일반고에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수시, 정시, 진학목표 등을 고려해서 고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심 전공 개설 대학이 알고 싶다면?

학과명 입력 → 학과명 선택 후 검색



대학의 입시 결과를 알고 싶다면?

대학명 입력 → 대학명 클릭 → 전형 평가기준



2028학년도 대입개편

현 중3학년 부터 적용

학부모 Q&A

수능 Q 수능에서 수학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변별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수능 A 2028 대입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최종 제외됨에 따라 수학출제 범위가 감소되어 변별력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변별력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작년 2024 대입수능시험에서 보듯이 킬러 문항이 없어도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난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한다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능 Q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변별력이 없어질까요?

수능 A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올 하반기에 발표할 교육부 예시문항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신 Q 서논술형 평가가 내신에서 강화되어도 신뢰성이 보장될까요?

내신 A 현재에도 국가 시도 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평가 기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서논술형 평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연수가 진행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 Q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가 불리하지 않나요?

고교선택 A 특정 고교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내신 등급 구간별 인원이 증가한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하지 모르지만 현재보다 상대평가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에서 주로 이수하는 전문/심화과목도 상대평가로 변경되어 내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 시대에 발맞추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고 다양한 고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고교유형과 각 고교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학습특성 등을 고려해서 고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목선택 Q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미적분, 기하' 과목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목선택 A 대학의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의 역량을 꼭 확인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에서 교과이수과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하여 미적분과 기하 과목의 학업역량을 평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미적분과 기하 과목이 대학에서 학습의 기초 역량으로 필요한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목선택 Q 사회, 과학 교과와 융합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미기재되니까, 융합선택을 많이 듣는 게 내신 관리에 유리한가요?

과목선택 A 융합탐구 선택 과목은 사회 6과목, 과학 3과목에 해당하며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심지어 정시 수능전형에서도 희망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순히 내신성적만을 위한 융합선택 과목 이수는 바람직 하지 않으면 희망전공 관련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입제도 Q 내신이 5등급제로 되면 변별력이 낮아져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어떻게 운영될까요?

대입제도 A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신성적에 수능최저등급, 정성평가, 면접 등을 결합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방거점 국립대나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사회과학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한 전과목에서 상대평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내신만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현재와 같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신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최저등급 기준을 신설되거나 서술대와 같이 면접고사가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전형 모두 정확한 것은 추후 대학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쓰는 알쏭달쏭 우리말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소문이 금세 퍼졌다.

‘지금 바로’의 뜻으로 쓰이는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금세’는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라는 의미의 다른 단어이니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방’과 비슷한 의미의 ‘금세’는 본말인 ‘금시에’의 형태를 염두에 두면, ‘금세’의 형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랬단 말이야.

‘어쨌든’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어찌했든(어찌하였든)’의 ‘ㅎ’이 줄어들어 ‘어쨌’나 ‘어쨌든’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준말을 적을 때 원말의 형태를 밝혀 ‘어쨌든’과 같이 적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쓰이는 ‘이 자리를 빌려~’라는 표현에는 ‘빌어’가 아니라 ‘빌려’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빌리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 혹은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를 이용해서’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빌려’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어’라는 기본형이 ‘빌다’이기 때문에 간청하거나 호소할 때 씁니다. ‘무릎을 꿇고 빌다’, ‘소원을 빌다’처럼 ‘이 자리를 빌 수 없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라고 써야 합니다.

옷소매를 걷어붙이다.

‘붙이다’는 사물/대상을 실제로 (혹은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접촉/부착하는 비교적 구체적/직접적 행위와 관련된 말입니다. 따라서 ‘소매나 바짓가랑이 따위를 말아 올리다’는 뜻으로 ‘걷어붙이다’를 쓸 때는 ‘부치다’가 아닌 ‘붙이다’가 포함됩니다.

동생이 형의 장난감을 뺏었다.

‘뺏다’는 ‘빼앗다’의 준말로, 받침에 ‘ㅅ’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과거형으로는 ‘뺏었다’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운전면허를 뺏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뺏다’는 ‘빼다’의 과거형이므로 ‘관리자가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뺏다’와 같이 씁니다.

허투루 대하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되는대로’의 뜻을 가진 부사 ‘허투루’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이나 ‘함부로’와 유사한 의미로 쓸 때는 ‘허투로’가 아닌 ‘허투루’로 써야 맞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누리소통망(SNS)에 놀러오세요!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